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버릴까



김필수의 차 이야기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실시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FSD), 대형 원통형 배터리, 생산 자동화, 기가캐스팅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특히 차량을 오래 사용할수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과 기능이 개선되는 방식은 테슬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혁신을 주도했던 테슬라가 최근 전기차 사업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모델S와 모델X 등 다양한 차종을 선보였지만 생산 중단을 결정했고, 사이버트럭 역시 생산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주력 판매 모델은 모델3와 모델Y 중심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신차 출시 주기도 경쟁사보다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도 달라졌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현지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과거 20~30%에 달했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산 모델Y를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 시내 테슬라 스토어에 사이버트럭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목하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다. 생산을 중단한 모델S와 모델X의 생산 공간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도 미래 사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기차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차종을 확대하기보다 모델3와 모델Y 등 핵심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로봇과 자율주행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기차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AI 사업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바뀌는 셈이다.

결국 테슬라의 다음 승부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얼마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스페이스X와의 사업적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머스크가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혁신으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테슬라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할 시점이다.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신뢰



기자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수 천 만원의 예금을 옮길 수 있는 시대다. 은행 영업점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대규모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만큼 금융위기의 전개 속도도 빨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25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을 연계한 첫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중첩돼 디지털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 공격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기 시나리오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보보안 문제가 단순한 전산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은행권의 보안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은행이 해킹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하루 이상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모의해킹을 통해 발견한 보안 취약점 가운데 개선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자금을 옮기는 데는 불과 몇 초면 충분하지만, 정작 금융회사가 침해사고를 인지하는 데는 수십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은행들은 앞다퉈 AI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부터 AI 기반 자산관리, 업무 자동화까지 기술 경쟁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면 보안과 위기 대응 역량이 디지털 혁신의 속도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역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평가에서도 디지털 혁신 성과만큼이나 보안 투자와 사고 대응 역량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은행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도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가 은행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마저 빨라졌다. 은행들이 디지털 혁신에 쏟는 열정 만큼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집 매매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60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72년생**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하세요. **84년생** 남의 일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9년생 노력의 대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61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73년생**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50년생 설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년생** 건강을 주의하세요. **74년생** 공들인 노력은 끝내 이루겠습니다. **86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51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75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성공의 길은 단 한가지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64년생**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하세요. **76년생** 업무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이직운이 있으나 신중하세요.

53년생 지금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65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으세요. **77년생** 모든 일에 근본은 정직입니다. **89년생**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54년생 해외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8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90년생** 까딱 잘못하면 도리어 그르치게 됩니다.

55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 집니다. **67년생**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들게됩니다. **79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91년생** 본업에 충실하세요.

56년생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68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80년생** 사소한 재물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92년생** 중심을 잡아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57년생 사람은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69년생** 혼란의 와중에서 겨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년생** 내부를 견고히 하세요. **93년생**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주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58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습니다. **70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82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4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59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71년생** 오래 묵힌 감정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갑니다. **83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95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솟아납니다.



김상회의 四季

국화가 전하는 희망

봄에 벚꽃이 있다면 가을에는 국화가 있다. 화려한 벚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면, 소박한 국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국화는 작고 촘촘한 꽃잎도,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다.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은데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꽃에서 찾기 어려운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자신을 뽐내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의 모습으로 피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흔히 화려함을 떠올린다. 크고 눈에 띄거나, 남보다 뛰어나거나, 누구나 감탄할 만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반드시 화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입어 편안해진 옷,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얼굴,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특별하지 않아도 은근히 마음이 가는 것들이다.

국화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부담스럽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누구나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국화의 매력이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국화 같은 아름다움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많다. 젊을 때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진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고,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소중해진다. 국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가을이라는 계절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굳건한 가을 국화는 성숙함과 인내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피어나는 국화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아서 누구나 한 번쯤은 힘겨운 시간을 겪는데 그래도 소박한 꽃을 피워내길 희망하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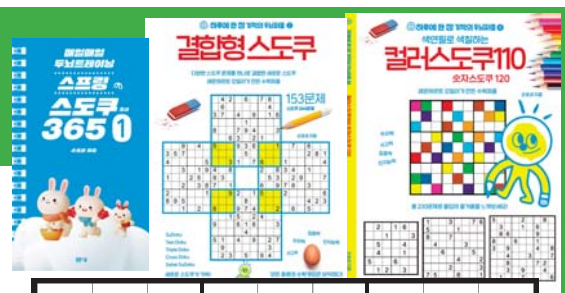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3			1
			8			3	2	7
		9	4	3		1	8	
		5				9		
	1	4		5	9	7		
9	3	7			8			
6			9		4			8

		1		6			8	3
6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1	5	6	7	9	8	3
6	7	5	9	3	8	2	4	1
9	3	8	1	4	2	6	7	5
8	9	3	2	1	5	7	6	4
4	5	7	8	9	6	3	1	2
1	6	2	4	7	3	8	5	9
7	2	9	6	5	1	4	3	8
5	8	6	3	2	4	1	9	7
3	1	4	7	8	9	5	2	6

4	7	2	5	6	3	8	9	1
5	9	6	8	4	1	3	2	7
1	8	3	7	9	2	4	5	6
7	2	9	4	3	6	1	8	5
3	6	5	1	8	7	9	4	2
8	1	4	2	5	9	7	6	3
2	4	8	3	1	5	6	7	9
9	3	7	6	2	8	5	1	4
6	5	1	9	7	4	2	3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